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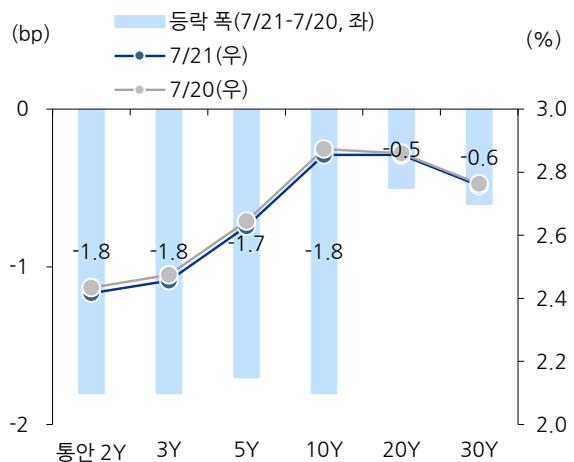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38_jhoonlee@eugenefn.com RA 유재혁_02)368-6177_dbwogur170@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 bp, 틱)			
		7/21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456%	-1.8	-1.8	-14.0
	한국 국고채 10년물	2.855%	-1.8	-3.1	0.0
	장단기금리차(10년-3년, bp)	39.9	39.9	41.2	25.9
	3년 국채 선물(KTB)	107.23	8.0	9.0	58.0
	10년 국채선물(LKTB)	117.96	26.0	31.0	104.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3.862%	-0.9	-3.9	-37.8
	미국채 10년물	4.378%	-4.0	-5.7	-19.4
	장단기금리차(10년-2년, bp)	51.6	54.7	53.4	33.3
	독일국채 10년물	2.614%	-7.9	-11.4	25.1
	호주국채 10년물	4.322%	-1.6	-5.0	-4.6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
- 간밤 월러 연준 이사의 7월 인하 주장에 따른 미국채 금리 하락에 연동, 강세 출발.
- 한편 일본 여당은 주말 중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차지에 실패. 다만 이시바 총리가 이날 총리직 유지를 공식화해 관련 불확실성은 완화.
- 오후 중 외국인, 10년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하며 강세 폭 확대. 3년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도 장 막판 약 1만 계약 이상 증가하는 등 우호적 수급 흐름이 시현.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불 플래트닝 마감.
- 특별한 미 경제지표 발표는 부재. 일본 재정 악화 우려가 수그러들며 미국, 독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장기 물 전반에 강세가 나타남.
-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여당 과반 유지가 실패했으나 이시바총리는 직무 유지 의사를 강하게 보인 영향.
- 당초 시장은 일본 야당 선전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해온. 이에 따라 소비세 인하 및 철회를 포함한 확장 재정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며, 엔화 약세 및 금리 베어스텝을 전망해왔으나 반대 양상이 나타난 셈.



FX & Commodity		(단위: %, \$)			
		7/21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388.20	-0.3%	0.5%	-5.7%
	달러지수	97.86	-0.6%	-0.3%	-9.8%
	달러/유로	1.169	0.6%	0.2%	12.9%
	위안/달러(역외)	7.17	-0.1%	-0.0%	-2.2%
	엔/달러	147.37	-1.0%	-0.2%	-6.2%
	달러/파운드	1.349	0.6%	0.5%	7.8%
상품	해알/달러	5.57	-0.2%	-0.4%	-100%
	WTI 근월물(\$)	67.20	-0.2%	0.3%	-6.3%
	금 현물(\$)	3,397.39	1.4%	1.6%	29.5%
	구리 3개월물(\$)	9,867.00	0.9%	2.6%	12.5%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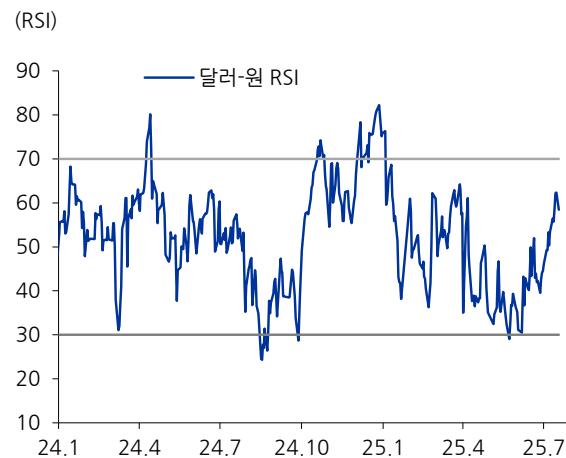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4.80원 하락한 1,388.2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382.20원 마감.
-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EU 관세 우려 속 약 보합을 기록. 달러-원도 -0.90원 하락 출발.
- 개장 직후 낙폭을 확대한 뒤 점심 무렵에는 보합권까지 반등했으나, 이후 재차 방향을 아래로 틀었음. 주말 동안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연정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나, 이시바 총리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엔화가 불확실성 해소에 반등하자 원화도 이에 연동. 외국인들도 국내주식시장에서 8천억원 이상 순매수.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엔화 반등 속 하락.
- 전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연정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나, 이시바 총리가 퇴임 거부를 시사하면서 불확실성 완화. 7월 들어 가파르게 절하되었던 엔화는 모처럼 큰 폭 반등.
- 미국에서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는 부재했으며, 6월 경기선행지수가 -0.3%(M) 하락.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요국과의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합의의 시기보다는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언급.